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역할

박 윤 기

I.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에서 대개의 여성은 양극화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극화 이미지가 가장 먼저, 그리고 확연하게 묘사되고 있는 장르는 그 동안 “미학적인 요소가 부족하다”(Ellmann 464)는 이유로 평론가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었던 『실내악』(*Chamber Music*)을 비롯한 그의 시작(詩作)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또 다른 시작인 『자코모 조이스』(*Giacomo Joyce*)에서도 상실과 배반이라는 주제의 진행과 맞물려 여성의 양극화된 이미지가 눈에 띄는데, 이는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그것과 직접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는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즉 조이스의 여성인물이 주로 성처녀 아니면 요부라는 양가적인 이미지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그의 여성관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조이스의 여성은 단순

히 남성화자의 시각에서 보이는 피동적인 대상에 머물고 있는가? 작가는 과연 샌드라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버(Susan Guber) 등이 중심이 된 페미니스트 평론가들의 주장대로 철저하게 남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문학의 전통을 심화시키는”(519) 결점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이 생긴다.

조이스처럼 남성의 주도적인 시각을 통해 거의 모든 작품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성처녀와 요부라는 이분법적 이미지의 여성을 그린 작가는 여성을 폄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헤일브룬(Carolyn Heilbrun)의 주장대로, “그는 여성을 전체 인간의 체계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216) 때문이다. 하지만 조이스의 작품에서 여성이 양극화된 이미지로 분명 존재함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의 여성관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가 그린 여성의 양극화된 이미지는 예술가를 꿈꾸는 스티븐에게 그의 의식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거나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인식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직 수습 예술가인 그가 작가로서의 경험을 쌓아가는 데는 항상 여성이 그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여성은 그의 예술적 창조력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의 작품 중에서도 여성의 양극화된 이미지가 확연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먼저 재고해본 후, 그러한 여성의 이미지가 실제로 조이스의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여성을 폄하한 작가로 몰아붙인 적지 않은 비난들이 정당하지 못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듯 필자는 조이스의 여성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작품에서 예술가로 성장과정에서 있는 스티븐에게 끼치는 여성들의 역할과 그로인한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옮길 것이다.

II.

1.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양극화이미지

조이스 작품에서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실내악』에서부터이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주도하는 화자는 의인화된

“사랑”이라는 남성인데, 그가 바라보는 여성은 처음엔 성처녀의 이미지이지만 그녀로부터 구애를 거부당한 후 그녀의 이미지는 타락한 요부의 그것으로 변화를 겪는다. 즉, 여인에 대한 화자의 심경에 따라 그녀의 모습은 흰 피부에 황금 빛 머릿결을 한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무서운 마녀의 그것으로 양극화된다.

이 같은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는 약 10년간의 격차를 두고 나온 『자코모 조이스』에서도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처음 등장하는 여인은 성모 마리아처럼 순결한 모습이지만 차츰 그녀의 이미지는 타락한 요부나 유령으로까지 변모된다. 이는 『실내악』의 특징인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자코모 조이스』의 여성도 처음에는 수줍은 미소를 짓는 순결한 이미지이지만, 이 후 “새”(GJ 7), 닭(GJ 12), 혹은 “도마뱀”(GJ 14)과 같은 동물이나 거친 풀과 같은 야생식물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양극화되는 데는 『실내악』의 경우처럼 자아중심적인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그녀를 “낯선 사람”(CM 638)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원인이 된다(박윤기 2003, 16).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둘 사이의 관계가 “낯설게” 변모된다는 설정은 비단 시작에 한정되지 않고 『망명자들』(Exiles)의 베써(Bertha)와 리처드 로우언(Richard Rowan) 사이에서도 반복되며 『영웅 스티븐』의 에머 클러리(Emma Clery)가 양극화된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녀도 처음 소개될 때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이지만, 모란 신부(Father Moran)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천박한 요부의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된다. 여기서 스티븐이 “이 젊은 신부와 에머가 함께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안에 휩싸이는”(Stephen Hero 66) 것은 『실내악』과 『자코모 조이스』의 남성화자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여성에게서 순결한 이미지를 박탈하고 요부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과 연계된다. 그런데 이 작품이 전신이 되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오면 이렇게 양극화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한층 강화되어 나타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여성은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어디까지나 반쯤 감추어진 채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아무 곳에도 없다(Henke 50)는 헨케의 주장은 여성이 남성 주인공의 주도적인 시각을 통하여

단지 양극화된 피동적인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작품 전반부를 보면 성탄절야 가족모임에서 파넬(Parnell)의 정치적인 실각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논쟁에 관련된 데덜러스 부인(Mrs. Dedalus), 댄티(Dante), 그리고 캐더린 오셰이(Katherine O'shea)는 각각 어머니, 성처녀, 그리고 요부의 상징으로서 조이스가 여성을 양극화된 모습으로 규정지었다고 비난을 받는 이미지의 인물들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에 대한 스티븐의 양극화된 감정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는 하수구에 빠져 병이 나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싶다”(A Portrait 13)는 욕망을 느끼는데, 이 순간 어머니는 그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랑과 애정의 원천이다. 하지만 스티븐은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는 여성의 나약함을 보는 것 같아 경멸과 혐오감을 갖는다. 어머니는 오줌 찐 것을 처리해주는 부드러운 대상이지만, 동시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 “눈알을 빨 것이다”(A Portrait 8)라고 말하는 댄티 숙모처럼 무서운 대상이기도 하다. 그는 동급생인 웰즈(Wells)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에게 키스하는지”(A Portrait 14)와 크랜리(Cranley)로부터는 “어머니를 사랑하는지”(A Portrait 240)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아 오이디프스(Oedipus) 감정을 의식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예수를 감싸 안은 성모의 이미지에 중첩시키는데, 이렇게 되자 자애로움과 위협적인 양가적 이미지에 다시 신성과 세속이라는 양극화된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결과만 낳는다.

이러한 스티븐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은 어린 시절 사랑의 대상인 아일린(Eileen)과 E. C.(Emma Clery: 에머 클러리),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인 메르시데스(Mercedes)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스티븐의 성적인 욕망과 충동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좌절시키기도 하는 요부와 성처녀라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아일린은 그의 성적인 욕망을 일깨우지만 성모를 연상시키는 하얀 손으로 그러한 욕구를 좌절케 한다. 에머 역시 스타킹을 신은 모습에서 강한 페티시즘을 불러일으키는 요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욕정이 생겨나는 것조차 “그녀의 순수함을 찢어발기고 짓밟는 행위”(A Portrait 115)라는 죄의식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성모의 이미지가기도 하다(Roughley 90).

스티븐이 메르시데스를 떠올릴 때 자신을 마치 몬테 크리스토(Monte Cristo) 백작과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성은 욕망의 대상이자 욕망을

억제시키는 양극화된 이미지로 그려진다. 메르시데스는 자기가 배신한 옛 애인에게 포도를 권유하는데, 이 때 백작은 “부인, 전 머스켓 포도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A Portrait 63)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여기서 포도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적인 기회를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백작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앞서 『실내악』등의 시작이나 『영웅 스티븐』과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랑하는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을 때 주인공의 태도가 돌변했던 상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변에 서 있는 바닷새를 닮은 한 소녀의 모습에서 여성의 양극화된 이미지는 두드러진다.

물이 흘러가는 한가운데에서 한 소녀가 바다를 응시하며 홀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마술로 인해 이상하고 아름다운 바닷새의 모습으로 변모된 듯이 보였다. 그녀의 길고 날씬한 벌거벗은 다리는 학의 그것처럼 섬세했고 한 줄기 밝은 초록색의 해초가 맨살 위에 표시처럼 모양을 만든 것 같고 온통 순결하게 보였다. 탱탱한 탄력의 상아처럼 부드러운 빛을 내는 그녀의 두 허벅지는 거의 엉덩이까지 드러나서 속옷의 하얀 깃 장식은 부드러운 흰 깃털처럼 보였다. 그녀의 청회색 치마는 허리춤까지 대담하게 올려져 있었고 뒤쪽은 비둘기의 꼬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젖가슴은 새처럼 부드럽고 가냘팠고, 검은 깃털의 비둘기 가슴처럼 가냘프고 또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긴 머리칼은 소녀다운 데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경이감이 드리워 있었다. (A Portrait 171 필자강조)

여기서 “상아처럼 부드러운 빛”의 살결과 “청회색” 옷을 입은 모습은 분명히 가톨릭의 성모를 연상시키지만, “긴 머리칼”의 “엉덩이까지 치마를 걷어 올린” 모습은 단연코 요부의 속성이 된다. 상아빛은 구약성서에서 솔로몬(Solomon)의 아가(雅歌)편에 나오는 “그대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이다”(7:4)에서 인용한 말인데, 위 인용구문에서 바닷새 소녀의 허벅지가 상아빛이라는 말은 바로 성스러운과 세속적인 면이 혼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Holland 286). 바닷새로 변용된 소녀의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레다(Leda)와 백조”에 관한 이야기나 혹은 그 신화에 근거를 둔 예이츠(W. B. Yeats)의 「레다와 백조」(“Leda and Swan”)에서 레다처럼 순결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해변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바다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Venus)처럼 요부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작품에서는 스티븐이 “양팔에 안겨 천천히 애무를 받고 싶다”(A Portrait 101)고 느끼는 홍등가의 매춘부나 다빈(Davin)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시골 여인숙의 유부녀처럼 금지된 쾌락을 자극하는 요부가 눈에 띄는 동시에 성 모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천국의 신”, “신성함”, 그리고 “천사”와 같은 단어가 작품 전반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부분 양극화된 이미지로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 여성들은 스티븐의 마음속에서 “순진함과 신성함이 은밀함과 개방성이라는 양극적인 이미지”(DiPasquale 475)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2. 여성의 양극화이미지 형성에 끼친 가톨릭 교의와 교육

그렇다면 조이스의 작품 전반과 특히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의 양극화이미지가 세간의 비판대로 스티븐 데덜러스만의 성 차별적인 기벽에서 연유된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일랜드 가톨릭 교육과정과 교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이다. 페어홀(Fairhall)은 당시 아일랜드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톨릭 국교의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은 스티븐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쩔 수 없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150).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여성을 양극화된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현상이었으며, 이것이 결코 스티븐 데덜러스 혼자만의 기벽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스티븐은 남성인 교사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어린 시절 그의 스승인 댄티 숙모는 “영리하고 책을 잘 읽어주는 여성”이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지식은 이 후 남성인 교사들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아놀 신부(Father Arnall)는 댄티 숙모보다 아는 것이 많았다. 그는 신부니까”(A Portrait 11)라는 식으로 성직자인 남성교사들이 여성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여성이미지 형성에 종교와 교육이 끼친 영향을 강조한 비알레(Beale)의 글을 보면 페어홀의 주장에 타당성이 더해진다.

[여성은]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드러운 존재다. 그들은 나중에 위험하고 탐스러우며 유혹적으로 바뀔 뿐, 결코 동등한 존재라 할 수 없다. 여성은 남성의 시각 속에서 세 가지 뚜렷한 이미지, 즉 성처녀, 요부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채색된다. 이 같은 이미지는 아이들의 모험담에서뿐만 아니라 노래나 종교적 설화나 형상을 통해 드러난다. 남성이 여성을 제 모습대로 뚜렷이 보지 않고 혼합된 이미지로 바라볼 때 여성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71)

위 인용문을 보면 여성을 성처녀나 요부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오줌을 처리해주는 부드러운 어머니”와 “눈알을 빼겠다는 무서운 어머니”의 이미지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스티븐의 심리에는 아일랜드 가톨릭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남성들의 보편적인 의식이 깊이 배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양가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탄생과 죽음/쾌락과 고통의 제공자로서의 어머니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언급한 매리 앤 퍼거슨(Mary Anne Fergusson)의 『문학에서의 여성의 이미지』(*Images of Women in Literature*)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와 도로씨 디너슈타인(Dorothy Dinnerstein)과 같은 사회심리학자는 여성/어머니의 이미지가 양분되어 묘사되는 이유를 출생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생리학적인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여성은 바로 아이를 인도하는 보호자인 동시에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체”(28)라고 하는 모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서 양극화된 이미지로 중첩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Freud)는 “아이가 자신의 주변을 의식하고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깨닫게 된 어머니를 욕망을 좌절시키는 적과 동일시한다”(83)는 주장으로, 보봐르(Beauvoir)는 “유아기 때는 어머니 육체에 관능적인 애착을 느끼지만 성장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136)는 논리로 남성이 여성/어머니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제 2의 성』(*The Second Sex*)에서 보봐르는 “남성은 자신이 주관적인 의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육체와 관련성이 깊은 여성에 대해서는 자기와는 다른 타자로서 인식한다”(129)고 주장한다. 필립 슬레이터(Philip Slater)는 『헤라의 영광』(*The Glory of Hera*)에서 남자아이가 어머니에 대해 갖게 되는 공포심과 그로 인한 여성기피증의 원인을 어린 시절부터 학교나 군대 같이 남성 중심적인 장소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족과 정서적으로 차단된 채 단성 일변도의 교육을 받는 소년들은 점차 여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 그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요지로 볼 수 있다. 슬레이터는 어머니/여성에게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아이/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머니의 애정이 결핍된 소년은 자기 과시를 통해 잃어버린 그 부분을 채우려 든다. 그런데 이는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존경을 얻으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취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그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며 불쾌감을 표출시키기도 한다. (439)

“실제로 스티븐이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교육이 큰 몫을 차지한다”(Roughley 87). 그가 처음 교육을 받은 클롱고우즈 학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회에 비교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여성에 대한 기피증을 일부 키웠을 것이다. 슬레이터의 주장대로, 당시 사내아이들은 남성중심의 교육체제하에서 어머니/여성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는 결국 여성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 사내아이가 여성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게 되고 여성과의 차별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Fairhall 150). 그러면서도 “사내아이는 유년시절 어머니 품속에서 느꼈던 파스함과 사랑의 감정을 여전히 지니게 된다”(Harris & Platzner 40). 결국 “사내아이는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여성을 혼돈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Beauvoir 129). 이 같은 논리로 스티븐 또한 어머니/여성에 대해 양극화된 감정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심리학적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스티븐이 여성을 양극화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은 조이스가 여성을 편하한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서구의 전반적인 문화, 종교, 그리고 교육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이스 이전의 문학에서도 여성이 양극화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성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가적인 입장에서 흔히 평가되고는 했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서구에서 여성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화된 이미지로 그려지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기독교 사상이 전파된 후 「창세기」(“The Genesis”)의 이브(Eve)를 보는 시각에서 여성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브는 죽음과 타락을 가져오는 파괴적인 이미지인 동시에 성모 마리아로 연계되는 재생의 이미지가 중첩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다가 15세기를 전후로 해서 성모마리아에 대한 숭배 열풍이 전 유럽에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 때 영국의 경우만 본다면 성모에 대한 숭배열풍이 성부나 성자에 대한 그것보다 더 강하기조차 했다. 당시의 설교, 노래, 시 등에서는 한결같

이 여성을 찬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문학작품에서 단테(Dante)의 베아트리체(Beatrice)나 페트라르카(Petrarch)의 로라(Laura)는 둘 다 하나님과 작가 사이의 중재자로 묘사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성모마리아를 모방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중세시대 궁정 풍의 사랑에서 여성이 성처녀로 등장하는 것 역시 성모승배열풍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세의 봉건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에도 여성을 찬미하는 풍조가 문학에서만은 지속되었다.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의 『아카디아』(Arcadia)에서 기사와 고귀한 귀부인의 모습이 나오며, 스펜서(Spenser)의 『선녀여왕』(The Faerie Queene)에서도 여성이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 그 실증이 된다.

그러나 이같이 여성을 순결하게 표현하는 이면에는 그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이 그에 못지않게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여성들이 모두 다 성모마리아 같은 찬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궁정 풍의 사랑 이야기만 보더라도 순결함의 찬사를 받는 여성들도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부의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경우도 많았다. 「거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Sir Gawain and Green Knight”)에서 거웨인 경은 요부의 유혹에 지속적으로 시달린다. 토마스 맬로리(Thomas Malory) 경의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King Arthur and His Knights)를 보면 기사단의 파멸을 이끄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요부의 이미지인 귀네비어(Guinevere) 여왕이다.

그런데 이처럼 서구문학에서 성처녀와 요부라는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가 자주 반복되는 이유에는 성서의 “창세기 신화”와 더불어 이른바 “그리스 신화”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Pandora)는 인간세계로 내려와 결혼을 하도록 운명지어진 여성인데, 그녀가 가져온 일명 “판도라 상자”에는 세상에 퍼지게 된 모든 죄악과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서로 상충된 선물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양극화된 인물의 속성을 지닌다(Ferguson 6). 이렇듯 에피메테우스(Epimetheus)를 유혹한 판도라나 아담(Adam)을 매혹시킨 이브에게는 요부의 속성이 잔존하고 또 그로 인해 이전에 누렸던 쾌락을 빼앗아간 냉정한 속성이 양극화된 형태로 잔존한다. 따라서 서구 문학에서 판도라나 이브를 모태로 한 여성인물이 양가적인 존재로 묘사되어온 것은 일견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서구에서는 교육, 종교, 그리고 문화전반이 여성의 이미지를

성처녀와 요부라는 양극화된 존재로 규정짓는 데 일조를 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짓는 빌러넬 시를 보면 가톨릭의 성모마리아조차 성처녀와 성숙한 매력을 발산하는 요부의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다”(Henke 2). 수태소식을 알리는 게이브리엘(Gabriel) 대천사의 환영에 젖어 있는 스티븐에게 성모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는 성처녀 마리아가 뿜어내는 “장미 빛으로 불타는 불빛”을 그녀가 지품천사를 자신의 침실로 “유혹하는” 미끼로 상상한다(DiPasquale 476). 이처럼 성모마리아가 순결한 성처녀와 지품천사의 유혹하는 존재로 양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닷새를 닮은 해변의 소녀가 성모를 연상시키는 신성과 요부를 연상시키는 세속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과 연관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스티븐이 보이는 여성에 대한 양극화된 감정은 남성으로서 그 혼자만의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논증한 바대로 서구 사회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여성상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예술창작조력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예술가로 성장해가는 한 젊은이를 그리고 있는 일종의 “성장소설”임을 감안한다면, 수습예술가인 스티븐이 성장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들의 영향과 그들이 발휘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스티븐은 자신의 예술이 “삶으로부터 삶을 재창조”(A Portrait 172) 하는 것이고 “경험의 현실에 백만 번이고 부딪쳐 그것을 버리는”(A Portrait 252-3)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과 그것을 구성하는 갖가지 경험들을 포용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바로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먼저 작품의 서두에 나오는 댄티 숙모는 그에게 외부 세계를 인식시켜 주는 주체이다. 스티븐은 그녀를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댄티 숙모는 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와서 눈알을 빨 것”이라는 위협을 가하지만,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스티븐은 처음으로 “사과하라”(apologise)와 “눈”(eyes)의 공통된 “아이스/ise”라는 운율을

이용해서 시 창작의 계기를 얻게 된다. 이처럼 댄티 속모는 스티븐의 마음속에 시어를 구상하도록 이끌며 그의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최초의 여성이 된다. 스티븐에게 처음으로 이성을 눈뜨게 하는 아일린도 그의 창의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녀는 스티븐에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욕구를 최초로 인식시켜주는 대상이 된다.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길고 가늘고 차가운 흰 손을 가졌어요”(A Portrait 36)라는 그의 말에는 성차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에머 역시 스티븐의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데, 이 또한 그의 창작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스티븐은 에머를 통해 육체적인 욕구를 관념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최초의 경험을 한다. 결국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은 그의 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이미지로 재창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메르시데스는 스티븐이 정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인 열망을 창작력으로 대치시키도록 유도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다. 그녀는 비록 실체가 없는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의 상상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여성적인 이미지만으로도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일린처럼 그녀도 스티븐의 성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상상 속의 성행위가 실제의 행위보다도 더 궁극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그는 여성들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를 통해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가 매춘부와 실제 성관계를 가진 후 그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리며 정신착란을 겪는 것 또한 작가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시련이자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은 “좁고 어두운 미로와 같은 거리”(A Portrait 100)를 헤매다 핑크빛 가운을 입고 있는 매춘부를 만나 그녀의 방에서 관계를 갖게 된다. 여기서 그와 매춘부의 관계는 스티븐의 성인 데들러스가 다이달로스(Daedalus)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고려하면 그리스 신화 속의 명장인 다이달로스와 크레타의 왕비 파시파(Pasiphae)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다이달로스는 파시파 왕비의 성욕을 충족시켜줄 요량으로 암소 모양의 기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박윤기 2005, 294). 이렇듯 스티븐의 경우도 파시파로 대변되는 매춘부와 경험의 통해서 예술가로서의 의지를 확고히 굳히게 된다. 그는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한 기질과 소심함을 떨쳐버리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구속하는 요소 중 하나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스티븐의 예술적 창의력 형성에 조력하는 여성의 역할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새 소녀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스티븐은 비로소 자신을 구속하는 조국, 종교, 가정을 떠나 예술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실제로 스티븐이 해변의 새 소녀를 만나는 장면은 문학과 관계되어 심층적인 상징을 갖는다. 그러한 상징은 “그녀의 길고 매끈한 다리는 마치 학의 다리처럼 섬세하다”(A Portrait 171 필자강조)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데, 조이스는 이 문구를 통해 여성의 육감적인 자태뿐만 아니라 여성만이 줄 수 있는 작품에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은 학의 다리를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살면서, 잘못하고, 타락을 할지”라도 “삶에서 삶을 재창조하고, 승리하기 위해(A Portrait 172),” 즉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것이다.

조이스가 굳이 해변의 새 소녀를 등장시킨 이유는 새에 대한 비유에서 학, 즉 크레인(crane)이 인도의 파괴와 창조의 신인 칼리(kali)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은 줄지어 날아가면서 흩어졌다가 뿔(V)자 형태의 꼴을 만들곤 하는데, 이것은 글자의 형태를 창조하는 것으로 마치 칼리 신의 속성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은 지혜와 학문의 신인 아폴로(Apollo) 신의 축제일에 봉헌되는 조류임을 감안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이미 문학이나 예술과 관계되는 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집트 신화에서는 학처럼 생긴 회색의 파오기의 머리를 한 토트(Thoth)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 역시 지혜와 관계되며 글쓰기를 관장하는데 무엇보다도 글을 창조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거론되는 존재이다. 그리스 전설에서는 헤르메스(Hermes)가 글자를 전달해준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가 글자를 담은 주머니가 학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가설을 적용해보면 그 주머니는 여성의 성기(genitals)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olland 285). 결국 해변의 새 소녀는 스티븐에게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식시켜줄 뿐만 아니라, 학을 연상시키는 소녀는 창작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 그가 예술가로서 인생을 개척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I.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이제까지 조이스의 그 어떤 작품보다도 비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던 작품이다. 그 이유는 스티븐이 펼치는 미학이론이 조이스의 예술관을 대변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곧 “조이스의 예술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평론가들은 “스티븐이 풀어놓는 미학이론이 그의 작품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Peake 62-3), 소설 전반의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S. L. 골드버그(Goldberg)는 스티븐의 미학이론이 조이스 자신의 신념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극적 인물로서의 젊은 스티븐”(64)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의 주장은 “젊은” 스티븐이 풀어놓는 예술관은 성숙한 조이스의 예술관과는 분명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그의 주장은 바로 조이스의 여성관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 말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이 여성을 양극화된 이미지로 한정하는 것은 조이스의 입장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젊은” 수습예술가가 지니는 한계로 보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는 조이스의 초기 작품인 『실내악』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작품에서 여성은 성스럽고 순결한 처녀에서 타락한 요부로 전락하는데, 이는 『자코모 조이스』와 『영웅 스티븐』에 등장하는 여성들에서도 되풀이된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여성을 양극화시켜 바라보는 남성화자는 한결같이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하거나 예술가가 되려는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조이스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남성화자인 스티븐이 지니는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는 어린시절 그가 받았던 가톨릭 교의나 남성중심의 교육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따라서 “젊은” 수습예술가인 스티븐을 통해 제시되는 양극화된 이미지의 여성은 혼란한 그의 청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성장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이스가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를 강화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비판론자들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여성들이 한결같이 침묵하는 수동적 존재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티븐은 언어의 주체로서 자신이 차지한 위치가 실은 자기가 타자로 간주한 여성들의 말없는 역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Friedman 41)는 주장처럼,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발휘하는 역할은 예술가로서 스티븐을 이끌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마치 「죽은 사람들」에서 게이브리엘(Gabriel)의 남성지배적 사고를 결정적으로 허무는 주체가 말없는 그레타(Gretta)이듯이, 이 작품에서도 말없는 여인들이 결국에는 스티븐이 예술가로서의 소양을 쌓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체들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보이는 여성의 양극화 이미지는 수습예술가가 성장기에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 작품의 여성인물들이 수습예술가인 스티븐에게 영감의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이스는 여성을 긍정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배재대)

인용문헌

- 박윤기. 「제임스 조이스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역할」.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 9권 1호 (2003년 6월): 5-25.
- _____. 「여성주의 관점에서 읽는 제임스 조이스」. 『영어영문학』. 제 51 권 2호 (2005년 여름): 283-303.
- Beale, Jenny. *Woman in Ireland*. Bloomington: Indiana UP, 1987.
- Beau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Trans. and Ed. H. M. Parshley. New York: Bantam, 1952.
- Chodorow, Nan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8.
- Dinnerstein, Dorothy. *The Mermaid and the Minotaur: Sexual Arrangements and Human Malaise*. New York: Harper & Row, 1976.
- DiPasquale, James W. "Seraphic Seduction in *Portrait of the Artist and Ulysses*." *Studies in the Novel*. Vol. 14, No. 4. (Winter 1987): 475-85.
- Ellmann, Richard. "Introduction." *Giacomo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xi-xxvi.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and History*. New York: Cambridge UP, 1993.
- Ferguson, Mary Anne. *Images of Woman in Literature*. Boston: U of Massachusetts P, 1981.
- Freud, Sigmun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s*. Trans. and Ed. James Strachey. New York: Bantam Books, 1959.
- Friedman, Susan Stanford. *Joyc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Ithaca & London: Cornell UP, 1993.
- Gilbert, Sandra M. & Gubar, Susan. *No Man's Land: The Place of the Woman Writer in the Twentieth Century*: Vol. 1: *The War of Words*.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88. Vol. 2: *Sexchanges*. New Haven: Yale UP, 1988.

- Goldberg, S. L. *James Joyce*. New York: Grove Press, 1962.
- Harris, Stephen L. & Gloria Platzner. *Classical Mytholog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8.
- Heilbrun, Carolyn. "Afterword."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Urbana: U of Illinois P. 1986. 215-16.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Holland, Norman N. *The Critical I*. New York: Columbia UP, 1991.
-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Penguin Books, 1992.
- _____. *Chamber Music*. In *The Portable James Joyce: Collected Poems*. Ed. Harry Levi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CM* and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_____. *Exiles*. Ed. Padraic Colum.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 _____. *Giacomo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GJ* and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A Portrait* and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_____. *Stephen Hero*. Ed. John J. Slocum and Herbert Cahoon.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55.
- Peake, Charles.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Roughley, Alan. *James Joyce and Critical Theory: An Introduction*. Michigan: U of Michigan P. 1991.
- Slater, Philip E. *The Glory of Hera*. Boston: Beacon Press, 1971.

Abstract

The Images and Roles of Women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Yun-Ki Pa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ages and roles of women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he male persona, Stephen Dedalus in the work, sees women as ambivalent beings. Most of women in Joyce's works such as *Chamber Music*, *Giacomo Joyce*, *Stephen Hero*, and *Ulysses* are also represented as ambivalent beings. The same women who receive the fragrant homage due to holiness also change to prostitutes who inspire burning sexual desire in the work. There are som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his other works in the sense that the images of women are ambivalent ones. I insist that the male personae in the works should be in the grip of confused identities, however. The male personae are all inspired spiritually and supported physically by the women whom they regard as ambivalent beings in their own view. Stephen Dedalus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vertheless relies on the women's service for physical nurturance and psychological support. The roles of women, therefore, are intrinsically of vital importance in helping him to be "a growing up artist".

■ Key words : roles of women, ambivalent beings, women's service, physical nurturance, psychological support (여성의 역할, 양가적 존재, 여성의 후원, 육체적 부양, 정신적 조력)